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보도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4.(화) 14:00 (2026. 11. 25.(수) 조간) **배포** 2026. 11. 24.(화) 09:00

기업이 제안한 기술수요, 정부 연구개발로 이어진다

- 과기정통부, 「2026년 민관 연구개발 혁신포럼」 개최 -
- 200여 개 기업 발굴 수요 '27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약 3,600억 원 규모 반영 -
- 산업계 기술수요 및 제도개선 의견을 담은 전략보고서 정부에 전달 -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11월 24일(화),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「**2026년 민관R&D 혁신포럼**(이하 '혁신포럼')」을 **개최**했다.

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인공지능(AI)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, **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**이 **더욱 중요**해지고 있다. 특히 **산업현장의 기술수요**를 **정부R&D 투자**에 **적극 반영**하고,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**긴밀한 협력**이 요구되고 있다.

이러한 배경에서 **과기정통부**는 2021년부터 **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**와 함께 '**산업별 민간R&D협의체**' 운영을 **지원**해 왔다. 협의체는 기업이 산업계의 공통 기술수요를 직접 발굴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하는 **민간 주도의 협력체계**로, 현재 **국내 200여 개 기업의 기술임원**(CTO) 등이 6개 분야 11개 분과*에 참여하고 있다.

* 탄소중립(산업공정혁신, CCUS), 무탄소에너지(신재생에너지, 차세대원자력), 첨단바이오(차세대 모달리티, 디지털헬스케어), 미래모빌리티(자율주행, UAM), 디지털전환(AI, 로봇), 우주항공

협의체가 발굴한 **기술수요**는 정부R&D 투자방향 수립부터 신규사업 기획, 예산 배분·조정에 이르기까지 **예산 편성 과정의 기초자료**로 활용되고 있다. 특히 **'27년도 정부 R&D 예산안**에는 협의체가 제안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**약 3,600억 원 규모**의 예산이 **신규 반영**됐다.

이러한 민·관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**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**, **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**을 비롯해 **민간R&D협의체 참여기업** 및 **관계부처**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.

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. 1부에서는 **'27년도 정부 R&D 예산안의 주요 내용**과 **민간R&D협의체의 활동 성과**를 공유하고, 산업계의 기술수요와 제도개선 의견을 담은 **분야별 전략보고서**를 **정부에 전달**했다. 아울러 **민·관 R&D 협력에 기여한 유공자**에 대한 **부총리 표창**도 수여했다.

이어진 2부에서는 **기술분야별 민·관 간담회**를 통해 기업들이 발굴한 **기술수요와 제도개선 과제**를 **구체적으로 논의**했다. 과기정통부, 산업부, 기후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산업계 제안에 대한 **검토의견을 공유**하고, 향후 **정부 R&D 정책**과 **신규사업**에 **연계**하는 방안을 기업들과 함께 모색했다.

과학기술혁신본부는 **전략보고서**와 **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**을 **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**와 공유하고, **'28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**과 **R&D 예산 배분·조정**에 활용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기술수요가 정부 R&D 투자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**민·관 협력**을 **지속적으로 강화**해 나갈 예정이다.

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"**확대된 정부 R&D 투자**를 **실질적인 성과**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기술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**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**하다"며, "**기업이 제안한 기술수요와 제도개선 의견**을 **정부 R&D 정책과 사업에 적극 연계**하고, 민간의 혁신 역량이 국가 R&D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은 “AI전환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**글로벌 기술경쟁**에 앞서기 위해서는 **민·관의 역량 결집이 필수적**이다”라며, “산기협은 6년 차를 맞이한 **민간R&D협의체**가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**민·관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**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은주 (044-202-6820)
		담당자	사무관	허지성 (044-202-6822)

대체불가 대한민국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
내삶을 채우는 디지털·AI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OPEN